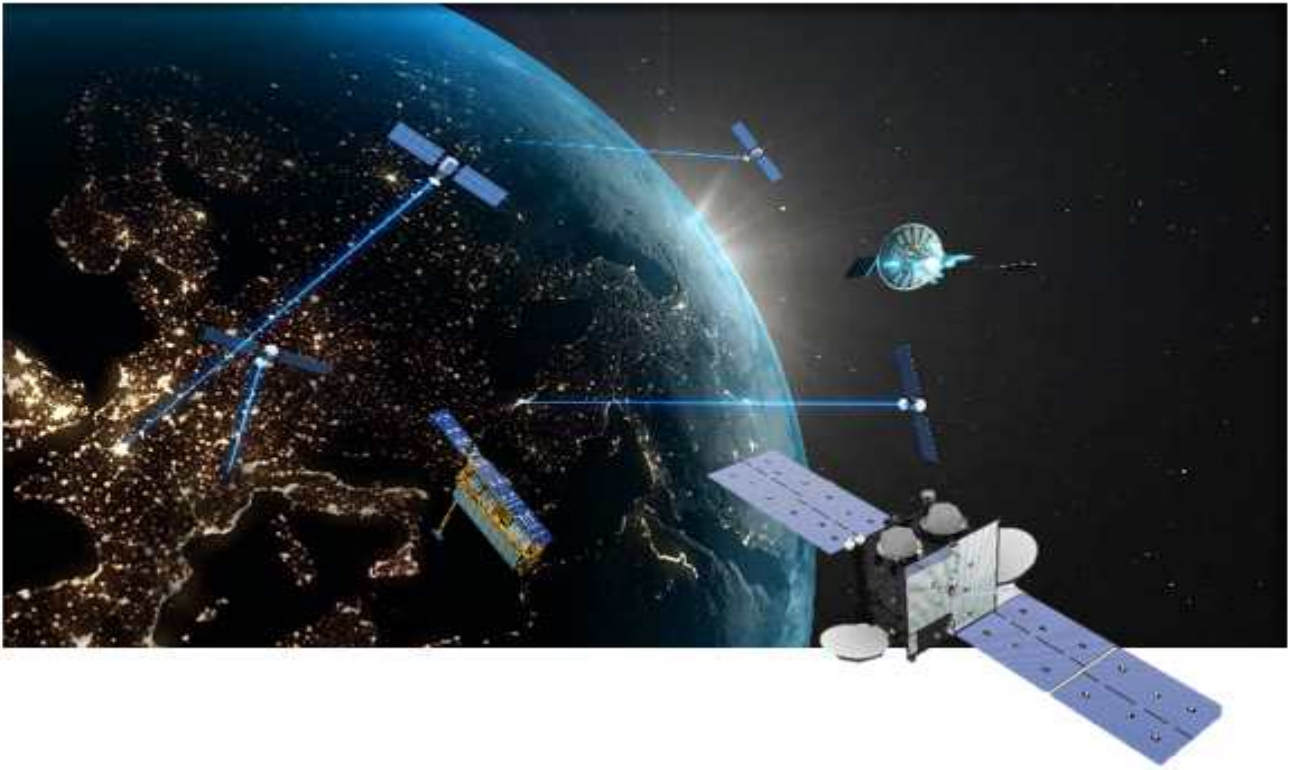




위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2026년 2분기)

2026. 7.

I 위성 관련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정 책

1. [아르테미스호] 아르테미스2호 실린 韓 위성, 정상교신 실패...최장거리 수신 의미
2.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 위성 데이터 활용 로드맵 제시
3. [우주항공청] 한국-캐나다, 저궤도 위성통신 · 우주탐사 협력 본격화
4. [부산시] 부산시 전국 첫 해양관측용 위성 '부산샷' 발사 성공
5. [국토위성] "국토 관측 더 빠르고 정밀하게"...'쌍둥이 위성' 시대 열린다
6. [KAI] KAI, 차중위성 3호 검증 완료...우주청에 공식 이관
7. [천리안위성] 16년간 16억km 비행 뒤 무덤궤도로...천리안위성 1호 임무 마무리
8. [과기정통부] "6G · 위성 주파수 우리가 짠다"...한 · 일, 전파 공조 조율

산 업

1. [이노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위성사업부 신설...전주기 우주 서비스 확대
2. [나라스페이스] 위성으로 재난 잡는다... 나라스페이스, 유럽 프로젝트 참여
3. [SK텔링크] SK텔링크 저궤도 위성, '원픽' 자리매김... 대형 선사 러브콜 릴레이
4. [AP위성] AP위성, AIT센터 준공...민간 첫 수도권 위성 조립 · 시험 시설 구축
5. [스페이스코인] 스페이스코인, 남아공 BCX와 위성 IoT 기술 실증 착수
6. [UNIST] 꺼도 기억한다... UNIST, 위성 · 6G 통신 칩 '무전력 대기' 반도체 개발

II 위성 관련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정 책

1. [중국] 중국, 중궤도 정찰위성 운용 "매우 드문 사례"
2. [나토] 나토, 한 · 일 등 인태4국에 '인공위성 협력' 제안...日是 긍정검토
3. [일본] 日, 동남아 8개국과 위성정보 등 공유 추진..."해상안전 확보"
4. [일본] 日자민당 "안보 전략에 우주감시 · 로켓역량 강화 담아야"(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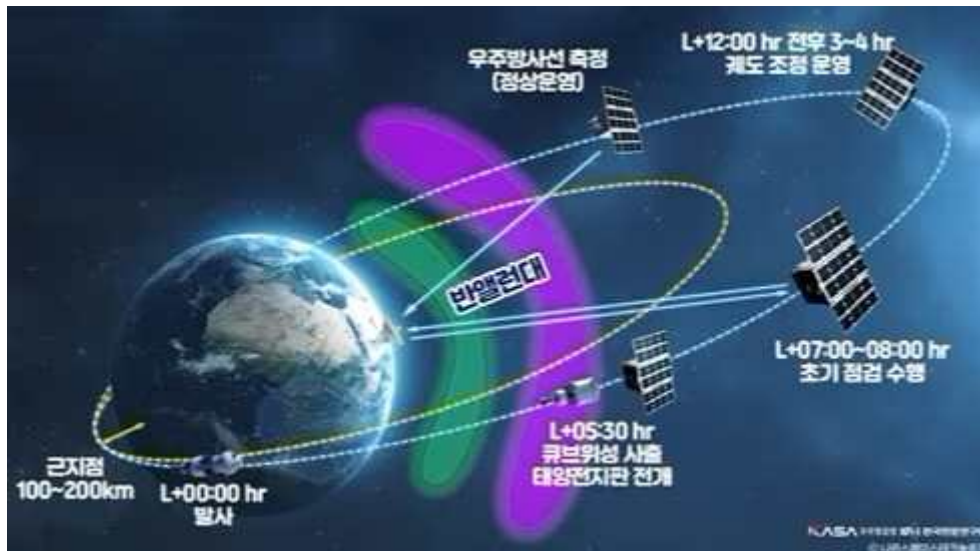
산 업

1. [아마존] 아마존, 위성통신업체 글로벌스타 116억달러에 인수 합의
2. [스페이스X] "우주에 AI 데이터센터 띄운다"...스페이스X AI 위성 공개
3. [로켓랩] 로켓랩, 12조3500억원 들여 이리돔 인수... 발사체 넘어 위성통신까지 확장

I. 위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제도 동향

정책-1 아르테미스2호 실린 韓 위성, 정상교신 실패...최장거리 수신 의미

원문: '26. 4. 3. 뉴스1



우주항공청 제공

■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된 큐브위성 K-라드큐브와 정상 교신 실패

- 우주항공청과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된 큐브위성 K-라드큐브를 운영
 - 그 결과 초기 교신 시도 중 일부 구간에서 신호를 수신했지만, 정상적인 교신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3일에 밝힘
- K-라드큐브는 앞선 2일 오전 7시 35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NASA의 우주발사시스템(SLS)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
 - 같은 날 낮 12시 58분 약 4만km 고도에서 사출
 - K-라드큐브 초기 운영을 위해 해외 지상국 안테나를 사용하여 교신을 시도했고, 2일 오후 2시 30분께 스페인 마스팔로마스 지상국으로부터 미약한 신호를 확보
 - 같은 날 오후 9시 57분 미국 하와이 지상국에서 위성으로부터 비정상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신

- 위성과 수신이 이루어진 거리는 약 6만 8000km로, 다누리 달 궤도선의 150만km 거리 통신 이후 국내 큐브위성으로서는 가장 먼 거리에서 수신이 이루어진 사례
 - K-라드큐브는 원지점 7만km 및 근지점 0km로 투입되어 근지점 상승 기동을 수행
 - 현재 근지점 고도 상승 임무의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근지점에서 고도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성은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소멸
 - 천문연은 위성의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용기관인 KT SAT 및 나라스페이스와 4일 낮 12시 30분까지 초기 운영을 지속할 예정

정책-2 해양수산개발원, 해양 위성 데이터 활용 로드맵 제시

원문: '26. 4. 9. 연합뉴스



천리안위성 2B호 [연합뉴스 자료 사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9일 해양위성 정보 활용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위성 데이터를 실제 해양 정책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제시
 -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 위성인 천리안위성 등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에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
 - 제도적 미비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정책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
 - 위성 데이터의 실질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 위성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 확립 ▲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분석 기술 및 통합 위성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 해양조사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추진 과제 도출
 - 2027년까지 단기 전략으로 제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2030년까지 중기 전략으로 제도 및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 2035년까지 국제 협력 플랫폼을 주도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장기 전략을 제시

- 이번 연구에서는 또 공유수면 관리, 적조 모니터링, 해양 오염 사고 대응 등 실제 업무 시나리오를 분석해 위성 활용 시 개선 효과를 구체화
 - 특히 AI와 위성정보를 결합할 경우 기존 관측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상 상황을 파악해 사고 대응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정책-3 한국-캐나다, 저궤도 위성통신 · 우주탐사 협력 본격화

원문: '26. 4. 16. 뉴스1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왼쪽)과 리사 캠벨 캐나다 우주청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제공)

- 한국과 캐나다가 전략적 공조를 통한 저궤도 위성통신 및 우주탐사 협력을 본격화
 -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서 개최 중인 제41회 스페이스 심포지엄을 계기로 14일(현지시간) 리사 캠벨 캐나다 우주청장과 양자면담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짐
 - 양국 간 우주 협력의 범위를 단순 교류를 넘어 전략적 산업 공조로 격상하기 위해 추진
 - 양 기관은 △지구관측 △우주과학 △우주탐사 △저궤도 위성통신 △위치·항법·시각(PNT) △우주상황인식(SSA) 및 우주교통관리(STM) 등 분야에서 긴밀한 실무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
 - 캐나다는 최근 국가 통신·안보 분야의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를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
 - 이 과정에서 한국은 위성 제조를 넘어 단말기, 안테나 등 위성통신 상용화에 필수적인 지상 국산화 생태계와 첨단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협력 파트너로 주목

- 실제로 양국의 협력은 정부 간 논의를 넘어 민간 우주 산업 전반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이어지는 추세
 - 양국의 대표 우주 기업들은 위성 시스템 및 발사 서비스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
 -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실무 워킹그룹을 가동해 후속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할 방침
 - 특히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시 협력 채널을 운영하고, 산업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뒷받침하는 등 민간 중심의 파트너십이 안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긴밀히 공조

정책-4 부산시 전국 첫 해양관측용 위성 ‘부산샛’ 발사 성공

원문: '26. 5. 4. 부산일보



3일 오후 부산샛을 실은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캘리포니아 우주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부산시·x.com 제공

■ 부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양관측용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

- 위성의 서비스 기간 동안 부산만의 자체 데이터 생산과 축적이 가능해지고, 지역 대학과 연계해 위성 산업과 인력 육성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
- 초소형위성 ‘부산샛(BusanSat)’ 이 지난 3일 오후 4시(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 9’ 을 통해 발사
 - 발사체에 실려 고도 615km 고도까지 올라간 부산샛은 같은 날 오후 6시 19분 정상적으로 분리해 성공
 - 이후 4일 오전 00시 41분에 칠레 폰타아레나스 지상국과 첫 양방향 교신
 - 이는 위성통신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초기 성과
- 부산샛은 무게 12kg에 12U 규격(20cm×20cm×30cm)의 초소형 위성
 - 2019년 국비 예산 182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시가 부산대와 부경대 등 지역 대학과 기업체 등이 협력해 위성을 개발
 - 2019년 유치한 데이터 기반 해양신산업 육성 국비사업 일환으로 위성 제작
 - ‘위성 발사 지자체’ 라는 타이틀을 확보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위성 관련 산업의 유치와 예산 확보가 용이해지기 때문

- 지자체 1호로 자체 위성 발사에 성공한 곳은 진주시
 - 지난해 3월 ‘진주샛-1B’를 쏘아 올려 초기 교신에 성공했고, 현재까지 지표면 촬영과 도시 공간변화 추적 데이터를 수신받고 있음
 - 첫 위성 발사에 힘입어 진주시는 같은 해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 현재 2029년 말까지 국립경상대를 중심으로 위성과 발사체 개발, 국산 부품과 차세대 기술 실증 등 국비 포함 450억 원 상당의 특구 사업도 진행 중

■ 부산샛은 앞으로 1년간 해양 미세먼지 관측 등의 해양 특화 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

- 부산의 항만과 서해안, 태평양 등 광범위한 해역을 관측하고 해양과 항만, 도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주 임무
- 특히, 부산샛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에 적용된 편광카메라 기술을 탑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 일반 광학카메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해양 표면과 대기 중 미세먼지의 크기 및 성분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
- 아울러 미국 항공우주국(NASA), 한국천문연구원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관측자료의 처리·분석 기술을 공유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부산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할 방침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50414225283887>

정책-5

“국토 관측 더 빠르고 정밀하게” ... ‘쌍둥이 위성’ 시대 열린다

원문: '26. 5. 20. 뉴시스

국토위성 1·2호 동시 운영 효과

촬영주기 단축부터 3차원 정보 구축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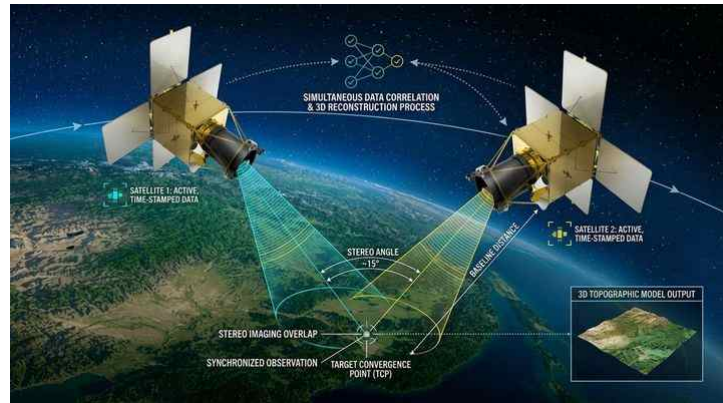


[서울=뉴시스] 국토위성 1·2호 동시 운영 기대효과. (제공=국토부)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국토교통부, 국토위성 1·2호를 동시에 운영하는 ‘쌍둥이 위성 시대’

- 위성 영상의 촬영 주기가 대폭 단축되고,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국토부는 20일 ‘국토위성 2호’ 발사를 계기로 국토위성 1호와 2호를 동시에 운영해 정밀 관측 역량을 강화하고, 위성 영상 정보도 민간에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
 - 국토위성 2호는 한국 시간 지난 3일 오후 4시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팔콘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됐으며, 현재 지상 약 500km 상공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태
 - 국토위성 2호는 국토교통부와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 개발
 - 초기 점검 단계를 거쳐 국토부가 운영하게 되며, 국토부는 현재 위성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면서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진행
 - 첫 영상 촬영은 이르면 1~2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국토위성은 차세대 중형 위성 시리즈 1·2호 위성으로, 중형 위성 표준 플랫폼과 국산화, 기술 민간 이전 등 기술·산업적 의미

- 동시에 지상 정밀 관측을 통해 공공 수요를 충족하는 활용 가치도 높다는 평가
- 특히 누리호 발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시험규격을 최적화하고, 발사규격 요구조건을 현실화하기 위해 발사체 개발 기관과 긴밀한 소통
- 이를 위해 위성·발사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 10명을 기술전문단으로 위촉하고 환경시험규격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검토를 연말까지 진행



[서울=뉴시스] 국토위성 1·2호 동시 활용한 입체 촬영. (제공=국토부)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국토위성의 주요 활용 및 전망

- 동시 운영을 통해 지구관측 위성의 핵심 요소인 촬영 주기가 대폭 단축
 - 하루 15바퀴 지구를 공전하는 국토위성 2기를 함께 운영하면 동일 지점 촬영 주기가 기존 4~5일에서 2~3일 수준으로 감소
 - 촬영 주기가 짧아지면 토지·도시·녹지·농산림·해양 등 국토 변화를 더 빠르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국가 정책 수립과 공공 서비스 전반에서 위성영상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
- 접경지역 공간정보 구축에도 변화가 예상
 - 그동안 군사·안보상 제약으로 지상 조사와 항공촬영이 제한됐던 접경지역은 국가기본도 갱신 주기가 2년 수준
 - 국토위성 활용 확대에 따라 향후 1년 단위 갱신이 가능해질 전망
 - 국가기본도는 국토 전체를 동일 축척(1대5000)으로 제작한 대축척 지도를 의미
 - 국토부는 접경지역 위성 관측 확대가 지도 제작과 재난 대응을 위한 정기적 영상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



[서울=뉴시스]국토위성 주요 활용 사례. (제공=국토부)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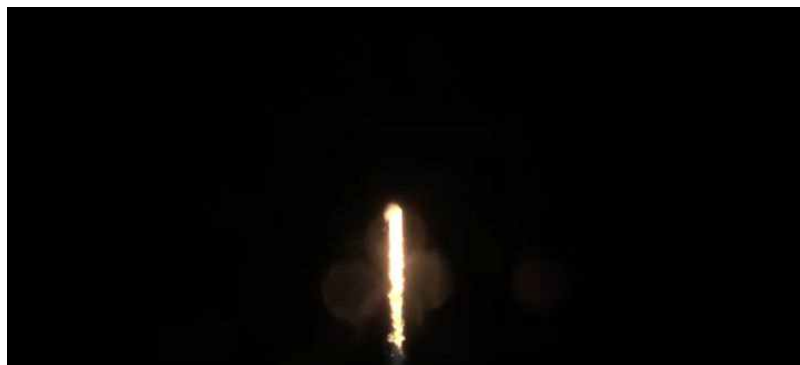
○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역량도 강화

- 국토위성 1·2호는 약 17분 간격으로 동일 궤도를 비행하는 쌍둥이 위성 구조
- 두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합성하면 고정밀 입체영상 제작이 가능
- 이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역까지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
- 특히 접경지역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해외 위성영상을 구매해야 했던 한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재난 대응 능력도 크게 향상

- 국토부는 현재 산불·수해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 위성영상을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데, 국토위성 1·2호 동시 운영으로 긴급 촬영 주기가 기존 2일에서 1일로 단축
- 국토부는 지난해 경북 산불과 천안 수해 발생 당시 행정안전부·산림청·지자체 등에 영상을 제공했으며, 미얀마 지진과 튀르키예 지진 발생 시에는 국제기구에도 위성영상을 지원

-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는 ‘국토위성지도’ 서비스도 개선
 - 지금까지는 국토위성 영상을 활용해 제작한 국토위성지도 갱신에 평균 10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약 5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
 -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캠핑지 지형·환경 사전 확인, 태풍 이후 산사태 피해 상황 점검, 부모님 산소 피해 여부 확인, 입주 예정 아파트 공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북한 고향 마을 변화 관찰 등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
 - 국토위성이 촬영한 국토위성지도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될 예정
- 국토부는 국토위성 활용 확대를 위해 ‘국토위성 활용 가이드북’도 제작·배포
 - 가이드북에는 위성영상과 이를 활용한 산출물 종류, 영상 접근 및 활용 방법 등이 포함
 - 가이드북은 국토지리정보원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공개
- 아울러 국토부는 관측 폭 등 성능을 향상한 국토위성 3·4호 도입도 추진 중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토부 독자 조달 방식으로 추진
 - 이와 함께 기상 조건이나 주야 여부와 관계없이 지상을 정밀 관측할 수 있는 SAR(영상레이더) 위성 도입도 추진
 - SAR 위성은 마이크로파를 활용하는 전천후 위성으로 데이터 해석 방식에 따라 mm 단위의 미세 변화까지 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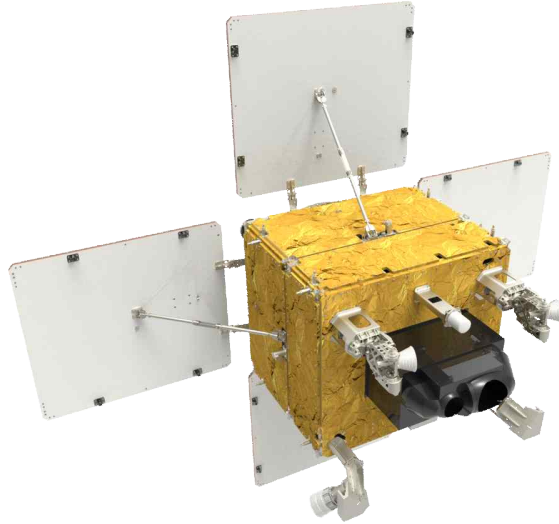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주관해 개발한 지상관측용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2호'가 3일 오후 4시(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다. (사진=우주청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20_000363630

정책-6 KAI, 차세대중형위성 3호 검증 완료...우주청에 공식 이관

원문: '26. 6. 1. 이투데이



▲KAI가 총괄주관기관으로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3호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KAI))

- 한국항공우주(KAI)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검증과 초기 운영을 마치고 우주항공청에 운영 권한을 이관, 위성 전 주기 경쟁력을 입증
 - KAI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CAS500-3)의 초기 운영 임무를 완료하고 운영 권한을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로 공식 이관
 -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우주기술 확보와 우주과학 임무 수행을 위해 KAI가 총괄주관기관으로 개발했으며 지난해 11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돼 발사
 - KAI는 발사 직후부터 남극 세종기지, 대전 지상국을 통해 위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성체 및 탑재체 성능 검증 등 주요 기능을 단계적으로 점검
 - 지난달 28일 우주청으로 이관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국내 3개 기관이 각각 개발한 탑재체에 따라 △지구 오로라 및 대기권 관측(한국천문연구원) △우주 플라즈마-자기장 측정을 통한 전리권 교란현상 관측(KAIST) △바이오 3D 프린팅 기반 줄기세포 3차원 분화배양 검증(한림대학교) 임무를 수행할 예정
 -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성공적인 개발과 초기 운영 완료는 KAI의 독보적인 위성 개발 경쟁력과 운영 체계 고도화를 보여주는 성과

- KAI는 지난 30년간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과 정지궤도위성(천리안), 차세대중형위성 및 정찰위성 등 다양한 위성 개발 사업에 참여해 개발 및 제작 노하우를 축적
 - 차세대중형위성 사업의 경우 2015년 1호 개발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설계 기관으로 참여
 - 2018년부터는 총괄주관기관으로서 2호부터 5호까지 위성 제작과 발사를 아우르는 개발 전 과정을 주관
 - KAI는 2023년 5월 국과연과 ‘초소형위성체계 합성개레이다(SAR) 검증위성’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중·대형 중심의 위성 포트폴리오를 초소형까지 확대

정책-7 16년간 16억km 비행 뒤 무덤궤도로…천리안위성 1호 임무 마무리

원문: '26. 6. 8. 연합뉴스



천리안위성 1호 폐기 기동 완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한민국 최초의 정지궤도 인공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의 임무가 8일 마무리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천리안위성 1호는 이날 오전 1시 32분 폐기 기동 및 부품 비활성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운영을 최종 종료
 - 궤도와 주파수 자원은 내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3호에 안정적으로 승계될 전망
 - 이번 폐기는 위성의 모든 탑재체 전원을 차단해 임무를 종료한 뒤 위성을 기존 정지궤도(고도 약 3만5천786km)보다 약 300km 더 높은 폐기궤도(무덤궤도)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 무덤 궤도는 수명을 다한 정지궤도 위성이 같은 궤도에 있는 다른 위성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동하는 궤도
-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1호는 당초 설계수명인 7년을 훌쩍 뛰어넘어 16년간 기상·해양 관측 및 통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 천리안위성 1호의 발사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기상관측 위성 보유국 반열에 올랐으며, 해외 의존도를 벗어나 독자적인 기상정보를 확보
 - 특히 기상 탑재체는 약 9년간 56만 여장의 영상을 촬영·송고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성 기상현상 관측에 널리 활용



천리안위성 1호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해양 탑재체는 3만 여장의 영상을 통해 서·남해 적조 관측과 해양오염 감시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기여
 - 통신 탑재체는 국내 최초로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위성통신 시험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위성통신 기술 발전과 상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 그동안 천리안위성이 비행한 거리는 약 16억km
- 2021년 4월부터는 남북 방향 위치 유지 기동을 줄이는 ‘경사궤도 운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연료 소모를 절감
 - 효율적인 운영은 설계수명의 두 배 이상을 넘기는 장기 운용 성과로 이어짐
 - 천리안위성 1호는 아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연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영기관이 스스로 위성을 통제해 폐기궤도로 이동시키는 ‘능동 폐기’를 수행
- 천리안위성 1호의 지구관측 임무의 경우 기상 임무는 천리안위성 2A호가, 해양 임무는 천리안위성 2B호가 차질 없이 각각 이어받아 수행 중
- 안정적인 임무 완수에 이어 후속 위성을 위해 궤도를 비워주는 능동 폐기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위성의 전 생애주기 운용 역량을 입증한 중요한 이정표

<https://www.yna.co.kr/view/APR20260608144700063?input=1195m>

정책-8 “6G·위성 주파수 우리가 쟁다” …한·일, 전파 공조 조율

원문: '26. 6. 17. 뉴시스



[서울=뉴시스]6G 이동통신 (사진= CGTN)2026.02.20.

- 대한민국과 일본이 오는 2027년 열리는 ‘전파 올림픽’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를 앞두고 차세대 주파수 영토를 선점하기 위해 공조
 - 과기정통부는 서울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7차 한·일 전파국장회의를 개최
 - WRC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에서 4년 주기로 여는 전파 분야 최고 의결회의
 - 국제 주파수 분배와 이용 규정 등을 담은 전파규칙을 제·개정하는 자리로, 각국 전파정책과 관련 산업 경쟁력에 영향
 -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국장급 협의체를 운영
 - 전파 분야는 국제 주파수 분배, 이용 규정 마련, 표준화 등에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
 - 한·일 전파국장회의는 2010년 시작
 -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 이어 올해 제7차 회의는 우리나라 초청으로 서울에서 개최
 - 이번 회의에는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 오나가 히사시 일본 총무성 전파부장이 양국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와 함께 수석대표로 참석

- 양국은 6G와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주파수 정책과 WRC-27에서 논의될 관련 의제에 대한 입장을 공유
 - 미래 전파환경 변화에 대비해 인접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도 지속
 - 6G, 위성통신 등 미래 전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주요 전파정책과 WRC-27 관련 의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

산업-1 이노스페이스, 위성사업부 신설...전주기 우주 서비스 확대

원문: '26. 4. 7. 뉴시스



[서울=뉴시스]이노스페이스 청주캠퍼스에 설치된 지상국 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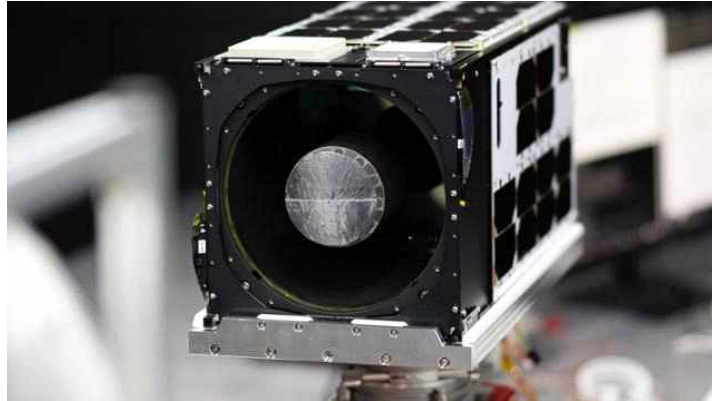
(사진=이노스페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위성사업부를 신설하고 발사 서비스 중심 사업 구조를 위성 개발·제조, 운용, 데이터 서비스로 확대
 - 발사체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위성 관련 임무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형 우주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
 - 이노스페이스는 청주캠퍼스에 위성 개발·제조와 시스템 통합, 운용·시험평가, 위성 안테나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7일 밝힘
 -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위성 설계·제조를 기반으로 한 통합 서비스를 준비 중
 - 향후에는 지상국 연계를 통한 위성 통신과 데이터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
 - 신설된 위성사업부는 3U 큐브셋 ‘이노셋-0’을 올해 3분기 발사가 예정된 ‘한빛나노’에 탑재해 자세제어(ADCS)·통신·전력 시스템·궤도제어 등 핵심 기술 검증을 완료할 예정
 - 시험 위성 ‘이노셋-0’은 실제 운용 환경에서 위성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 실증 위성으로 위성 상용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 활용

- 이노스페이스는 이노셋-0의 발사가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이 위성 개발부터 발사, 운용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 이노스페이스는 한빛 발사체를 이용한 반복 발사로 자체 위성 기술 고도화
 - 자체 보유 발사체 추진 기술을 위성에 적용하여 궤도 기동 및 운용 성능을 특화
 - 고난도 위성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

산업-2 위성으로 재난 잡는다… 나라스페이스, 유럽 프로젝트 참여

원문: '26. 4. 27. 한국일보



위성 기업 나라스페이스의 초소형 인공위성 '업저버-1A'. 나라스페이스 제공

- 국내 위성 기업 나라스페이스가 유럽 정보기술(IT) 진흥기구(ITEA)가 지원하는 글로벌 자연재해 위험도 평가 플랫폼 컨소시엄(NADIR)에 참여
 - NADIR는 위성,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산불, 홍수, 지진, 가뭄 같은 자연재해를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위험도를 정량 평가하는 통합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 한국과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루마니아 5개국의 9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며 내년 11월까지 진행
 - 국내에서는 나라스페이스가 유일하게 참여해 AI 기반 녹조 감지 알고리즘 개발을 주도
 - 복잡한 환경에서도 80% 이상의 탐지 정확도를 확보하는 걸 목표로 기술 고도화에 주력
 - 개발된 알고리즘은 NADIR 통합 플랫폼에 탑재돼 글로벌 재난 대응 모델을 위한 기술로 활용될 전망
 - 나라스페이스는 또 컨소시엄 공동 참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운용 중인 초소형 위성 ‘업저버’를 활용한 자체 위성 영상도 공급
 - 영상은 일일 지구 관측 플랫폼이자 공공 위성·지상 관측자료를 배포하는 글로벌 허브인 ‘어스 데이터 스토어’ (EDS)에도 통합될 예정
 - 회사는 세계 수요처에 자사 데이터를 공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2709570004276?dic=NA>

산업-3 SK텔링크 저궤도 위성, ‘원픽’ 자리매김...대형 선사 러브콜 릴레이

원문: '26. 5. 18. 뉴스웨이



사진=SK텔링크

■ SK텔링크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굳힘

- SK텔링크는 HMM, 팬오션,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 KSS해운 등 국내 대표 선사들과 스타링크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해상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검증된 파트너로 인정
 - 선박 통신은 한번 도입하면 수년간 운항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
 - 그만큼 대형 선사들이 잇따라 SK텔링크를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통신 · 보안 · 운영지원 전반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
- 특히 시범 도입이 아닌 운영 선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라는 점도 주목
 - 해운업계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글로벌 운항 표준 통신망’ 영역에서 SK텔링크를 표준 파트너로 채택
- SK텔링크의 차별점은 단순 회선 공급을 넘어선 통합솔루션 모델
 -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기존 정지궤도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지연과 250Mbps급 속도를 제공함은 물론, 선박 환경에 특화된 통합위협관리(UTM) 기반 사이버보안 체계를 통신망과 통합 설계해 제공
 - SK텔링크는 계약 이전부터 선사의 운항 노선과 업무 특성을 분석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인프라 설계에 미리 반영하는 ‘선(先) 컨설팅-통합 구축’ 방식을 적용

- 그 결과 상용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즉시 가동이 가능하고, 해운사가 별도로 SI·보안업체를 두지 않아도 됨
- SK텔링크는 해상에서 검증된 통합솔루션 모델을 조선, 해양플랜트, 공공, 국방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
- SK그룹 ICT 패밀리사의 양자암호 보안, AI 데이터 분석, CCTV 안전관제 등 그룹 역량을 단계적으로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여간다는 방침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6051810311538773>

산업-4 AP위성, AIT센터 준공...민간 첫 수도권 위성 조립·시험 시설 구축

원문: '26. 5. 20. 뉴시스



이성희 AP위성 대표이사가 AIT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경택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 AP위성이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수도권에 위성 조립·시험(AIT) 시설을 구축하며 위성 제작부터 시험·관제까지 가능한 원스톱 체계를 마련
- 위성통신 장비 전문기업 AP위성이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수도권에 위성 조립·시험(AIT) 시설을 구축하고 위성 전장품 제작부터 조립·통합·시험·관제까지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
- AP위성은 20일 경기도 부천에서 주요 관계자와 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AP위성 AIT센터 준공식’을 개최
 - 준공식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성희 AP위성 대표이사 주재로 AIT센터 시설 투어가 진행
 - 이번 AIT센터는 국내 민간 우주기업 최초로 수도권 내에 구축된 통합 위성 조립·시험 시설로, 위성 개발 핵심 인프라를 집약했다는 점에서 의미
- AIT센터는 위성 전장품(Avionics)의 보드 레벨 제작부터 위성 시스템 조립, 통합, 시험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 센터에는 위성 시험 조립 청정실, 위성 관제실, 우주급 인쇄회로기판(PCB) 제조라인, 위성 전장품 제작 청정실, AIT 운영센터, 위성 안테나 시설 등이 구축

- 자체 AIT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부터 시험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 국내에 자체 AIT센터를 보유한 기업은 몇 없으며 AP위성의 AIT센터는 규모 면에서 3~4위 수준으로 추정



AP위성 AIT센터. (사진=김경택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 총 5층 규모의 AIT센터는 750kg급 위성까지 조립·시험 가능한 청정실과 초저궤도(VLEO)부터 정지궤도(GEO) 위성까지 교신가능한 관제시설, ECSS(European Cooperation for Space Standardization) 국제 우주규격을 적용한 PCB 제조라인 등이 마련
- 여기에 진동시험기, 열진공챔버, EMC 챔버 등 우주 환경시험 설비를 갖춰 위성 전장품 제작부터 시스템 통합, 품질 검증, 실제 운용까지 이어지는 자체 개발 역량을 강화
- AP위성은 위성통신 단말기와 위성 시스템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온 국내 대표 민간 우주기업
-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 투라야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100만 대 이상의 위성통신 단말기를 공급했으며, 소형위성 플랫폼, 위성 본체, 탑재체, 전장품, 위성시험장비(EGSE), 지상국 시스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위성을 쏘아올려 데이터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도 계획

https://www.newsis.com/view/NIS/20260520_0003637635

산업-5 스페이스코인, 남아공 BCX와 위성 IoT 기술 실증 착수

원문: '26. 6. 11. 서울신문



스페이스코인 제공

- 탈중앙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스페이스코인(Spacecoin)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BCX와 위성 기반 사물인터넷(IoT) 연결성 검증을 위한 기술 실증(PoC)에 착수
 - 스페이스코인은 위성 및 지상 통신 기술, 하드웨어 장비, 기술 통합 시스템을 공급
 - 협력사인 BCX는 남아공 현지 규제 승인 획득과 관계 당국 협의, 장비 및 시험 장소 인프라 관리, 현장 테스트 운영 전반을 담당
 - 해당 실증 공정은 남아공 통신 규제기관인 ICASA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
 - BCX는 남아공 통신그룹 텔콤 SA(Telkom SA)의 완전 자회사로 분류되는 현지 주요 ICT 기업
 - 양사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스페이스코인이 구축한 탈중앙화 위성 네트워크가 실제 구동 환경에서 IoT 기기에 발송하는 데이터의 연결 안정성과 기술적·운영적 성능 지표를 검증할 계획
 - 위성 IoT는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유선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센서와 모니터링 장비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 수자원 관리, 농업 지표 관측, 물류 경로 추적 등 광범위한 지역에 시설물이 분산돼 지상망 연계가 제한되는 산업 분야에 도입

- 남아공 수자원 인프라의 경우 저수지와 파이프라인, 시추공 등 주요 수자원 시설이 광범위한 농촌 지역에 분산돼 있으며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많음
 - 스페이스코인은 위성 연결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지상 통신망 구축 없이도 원격지 센서와 중앙 관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다고 설명
 - 이번 남아공 실증은 스페이스코인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성통신 인프라 확대의 일환
 - 스페이스코인은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정부 협력 사업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현지 파트너와 위성통신 기술 도입 및 실증을 추진
 - 아프리카는 위성 연결 기술의 필요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이자, 해당 기술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6/11/20260611500143?wlog_tag3=naver

산업-6 꺼도 기억한다…UNIST, 위성·6G 통신 칩 ‘무전력 대기’ 반도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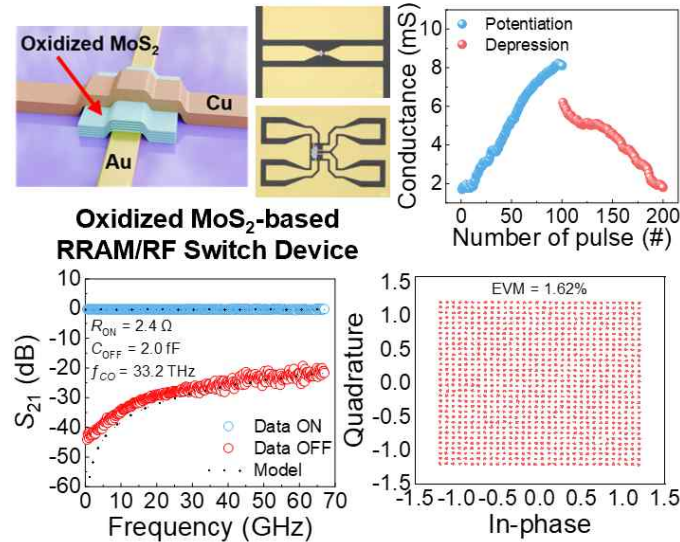
원문: '26. 6. 22. 아시아경제



연구진, 김명수 교수(좌측), 손주호 연구원. UNIST 제공

- 우주 위성통신과 6G 네트워크 시대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전력 소모와 공간 제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
- UNIST 전기전자공학과 김명수 교수 연구팀은 산화 2차원 반도체 소재를 활용한 다기능 멤리스터(Memristor) 소자를 개발
 - 이번에 개발된 소자는 통신 신호의 흐름을 제어하는 RF(고주파) 스위치와 데이터 연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기존 통신 시스템은 신호 제어와 연산을 각각 다른 반도체와 회로에서 처리해야 했지만, 연구팀의 소자는 하나의 소자로 두 기능을 모두 구현해 칩 면적을 줄이고 전력 소모를 크게 낮출 수 있음
 - 특히 이 소자는 한 번 상태를 변경하면 전원을 차단해도 켜짐과 꺼짐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비휘발성 특성
 - 별도의 대기 전력이 필요하지 않아 태양광 등 제한된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위성통신 장비나 차세대 6G 기지국에 적합하다는 평가

Oxidized MoS₂ Memristive RF switch



연구그림, 산화 이황화몰리브덴(MoS₂) 기반 다기능 멤리스터 RF 스위치의 구조와 성능.

- 연구팀은 2차원 반도체 물질인 이황화몰리브덴(MoS₂)을 400°C에서 산화시켜 소자를 제작
 - 산화된 이황화몰리브덴은 인가 전압의 방향에 따라 저항 상태가 달라짐
 - 전압을 가하면 저항이 낮아져 스위치가 켜지고, 반대 방향 전압에서는 저항이 높아지며 스위치가 꺼짐
 - 형성된 저항 상태는 별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도 유지
- 연구진은 이 소자를 배열해 통신 신호 처리에 필요한 행렬 연산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
 - 통신 환경에서는 여러 안테나를 통해 유입된 신호가 서로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원하는 신호를 복원하기 위한 복잡한 행렬 계산이 필수적
 - 기존 방식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한 뒤 별도 프로세서에서 계산해야 했지만, 이번 기술은 메모리 내부에서 직접 연산하는 인메모리(In-Memory) 방식으로 처리 효율을 높임
- 실험 결과 스위치를 한 번 켜거나 끄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140피코줄(pJ)에 불과했고, 동작 전력은 1밀리와트(mW) 이하로 측정
 - 변경된 저항 상태는 4만 초 이상 유지됐으며, 1000회 이상의 반복 동작에서도 안정성을 나타냄

- 연구팀은 초고속 통신에 활용되는 67GHz 대역에서 스위칭 성능을 검증했으며, 차단주파수는 33.2테라헤르츠(THz)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시뮬레이션을 통해 1024-QAM 신호 복조와 다중입출력(MIMO) 신호 복원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
-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우수신진연구, Space-K BIG 프로젝트,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
 -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지난 6일 온라인 게재

II. 위성 관련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정책-1 중국 중국, 중궈도 정찰위성 운용 “매우 드문 사례”

원문: '26. 4. 5. MBN



중국이 2023년 10월 5일 야오간-39 위성을 실은 창정-2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 [웨이보 사진 캡처]

- 중국의 야오간 정찰위성이 일본 상공을 약 10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자위대와 주일 미군 기지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
 -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인공위성 추적 사이트 ‘스페이스 트랙’의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군의 정찰용으로 의심받는 야오간(遙感) 계열 위성 약 160기 가운데 최근 3년간 고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약 80기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전함
 - 특히 자위대와 주일 미군 기지 주변 상공에서도 2시간에 약 10기의 중국 위성이 지나는 등 높은 빈도로 통과
 - 작년 12월 하순에는 미 해군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 주변 상공을 야오간 위성이 하루 평균 약 60회 통과
 - 미 해군의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 주변 상공도 하루 평균 48회 통과
 - 부대 배치 상황이 중국측에 거의 상시로 파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야오간 위성은 중국이 2006년부터 쏘아 올리고 있는 인공위성으로, 대부분 저궤도를 돌고 있음
 - 중국 위성의 주일 미군 기지 주변 감시는 대만 침공에 착수할 시점을 살피는 데 높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막는 ‘반접근·지역거부’ (A2AD) 군사전략을 확립하기 위해 우주감시 능력을 꾸준히 강화

정책-2 나토 나토, 한·일 등 인태4국에 ‘인공위성 협력’ 제안…日은 긍정 검토

원문: '26. 5. 10. 뉴시스



[헤이그=AP/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깃발) 2026.05.10.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에 유사시 인공위성 역량을 공유하는 ‘스타리프트(Starlift)’ 계획 참여를 제안
 - 위성이 파괴되는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체 위성을 띄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우주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염두에 둔 움직임
 -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 10여 개국은 2024년 위성 관련 유사시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의 스타리프트 계획을 구축하기 시작
 - 러시아와 중국이 위성 전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토 각국 위성이 피해를 입을 경우 협력국 거점에서 대체 위성을 신속하게 발사해 네트워크를 복구하겠다는 취지의 계획
 - 우리 정부 입장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나토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부처 간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짐
 - 실현된다면, 자국 위성 운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 백업 체계를 확보
 - 지방 발사 거점 활용을 확대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

-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는 나토의 태평양 지역 파트너 격인 인도·태평양 4개국(IP4)으로,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인 2023년 만들어 낸 개념
 -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 정상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며, 나토-IP4 정상회의도 매년 개최
 - 나토는 특히 중국 견제 차원에서 IP4와 협력 강화를 추진
 - 인태 내 상설 거점을 두기 위해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프랑스가 반대하면서 철회

정책-3

일본 日, 동남아 8개국과 위성정보 등 공유 추진… “해상안전 확보”

원문: '26. 5. 17.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신 FOIP 구상을 발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일본이 수입물자의 주요 수송로인 해상교통로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 정보 공유를 확대
 -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해양 상황 파악 시스템’ (MDA)을 구축하고 2030년대 초반까지 동남아 8개국의 참여를 추진할 계획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강한 경제를 내세우며 작년 11월 신설한 일본성장 전략회의의 민관투자로드맵에 담길 예정
 - 일본 정부는 정부개발원조(ODA)와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 (OSA) 사업을 동남아 각국 참여 촉진에 활용할 계획
 -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 등 해상교통로를 통한 자원 확보에서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항로 방위 체계 강화를 추진 중
 -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 말라카 해협, 대만과 필리핀 바탄제도 사이 바시 해협 등 해상 요충지와 인접한 국가들과 해상 운송 정보를 공유
 -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이 일대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

- 일본은 ODA와 OSA 사업을 통해 동남아와 태평양 도서국가 등에 순시선과 경비정, 감시용 무인항공기(UAV)를 보냄
 -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경비정, 말레이시아에 잠수 작업 지원선을 각각 보냈고 재작년에는 필리핀에 순시선을 제공
 - 이들 나라가 일본과 MDA 참여를 논의할 후보국들이라고 지목
-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베트남 순방 당시 하노이 대학에서 한 신(新)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정책 연설에서 해양 안보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 아울러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에도 해상교통로 방위 강화 전략이 담길 전망

<https://www.yna.co.kr/view/AKP20260517018500073?input=1195m>

정책-4

일본 日자민당 “안보 전략에 우주감시·로켓역량 강화 담아야” (종합)

원문: '26. 6. 8. 연합뉴스



일본 로켓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연내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에 위성 등을 통한 우주에서의 감시 역량과 로켓 발사 능력 향상을 포함할 것을 집권 자민당이 제안할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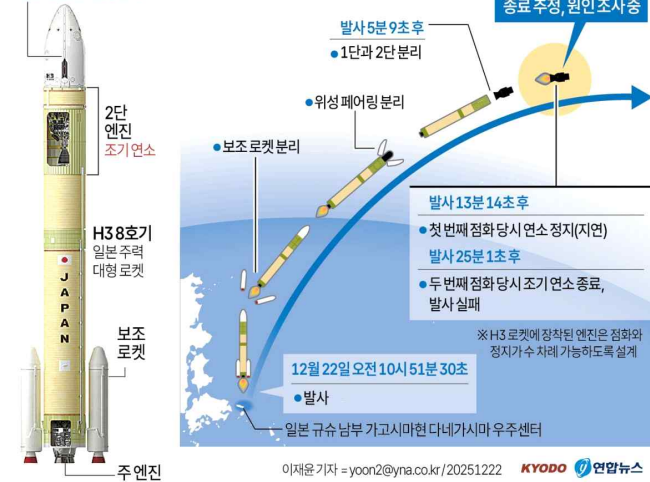
- 자민당 우주개발특별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와 자국 우주기본계획에 이 같은 정책을 담을 것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
 - 우주개발특위는 중국과 러시아가 타국의 인공위성 전파를 방해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보고 일본도 다른 나라의 위성 활동을 감시하는 우주 영역 인식(SDA) 능력을 갖춘 위성을 꾸준히 발사할 것을 촉구
 - 타국 위성의 전파 방해·가로채기를 막아내는 능력을 갖춘 위성 통신망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
 - 2040년까지 자국의 우주 산업 시장 규모를 13조엔(약 125조원) 규모로 키울 것을 요구하며 우주 전략 기금의 재원 충당과 로켓 제조·발사 설비 중점 지원 등도 강조

일본 대형 로켓 H3 8호기 발사 실패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발표 기준

미치비키5호기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GPS)에 사용되는 측량 위성,
위성 예정궤도 진입 실패



[그래픽] 일본 대형 로켓 H3 8호기 발사 실패 (교도=연합뉴스) 이재운 기자 = 일본이 22일 대형 로켓 H3 8호기를 쏘아 올렸으나 2단 엔진의 조기 연소로 탑재한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H3 8호기에 탑재된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해 발사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 NHK에 따르면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우주 비즈니스 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한 주력 로켓인 H3 6호기가 오는 10일 규슈섬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발사가 연기
- 새 발사일은 미정으로 H3 6호기는 보조 로켓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 로켓으로 인공위성 대신 금속 탑재물이 실릴 예정
- 지난해 12월 H3 8호기는 제2단 엔진의 조기 연소 종료로 탑재한 위성을 목표한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한 채 발사가 실패
- 이어 지난 3월 9호기 발사도 무산되면서 일본의 우주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진단
-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방위력 증강을 골자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며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개편까지 거론되자 일본 지방의회 73곳에서 원칙을 견지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
-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 지방의회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설

산업-1

아마존 아마존, 위성통신업체 글로벌스타 116억달러에 인수 합의

원문: '26. 4. 14. 이데일리



[뉴욕=이데일리 자료사진]

- 아마존이 위성통신업체 글로벌스타를 약 116억달러(약 17조원)에 인수하기로 합의
 - 아마존은 14일(현지시간) 글로벌스타 주주들에게 주당 9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아마존 주식 0.32주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
 - 다만 주식 교환 방식의 경우 주당 가치는 90달러로 상한이 설정
 - 이는 전날 종가 대비 약 23.5% 높은 수준으로 거래는 2027년 마무리될 전망
 - 인수 발표 이후 글로벌스타 주식 거래는 일시 중단됐으며, 뉴욕 증시 개장 전 아마존 주가는 약 1.1% 상승
 - 이번 인수는 아마존이 추진 중인 저궤도(LEO) 위성망 ‘아마존 레오’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
 - 아마존은 위성 인터넷 사업을 확대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경쟁한다는 구상
 - 스타링크는 현재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와 약 1만기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이 9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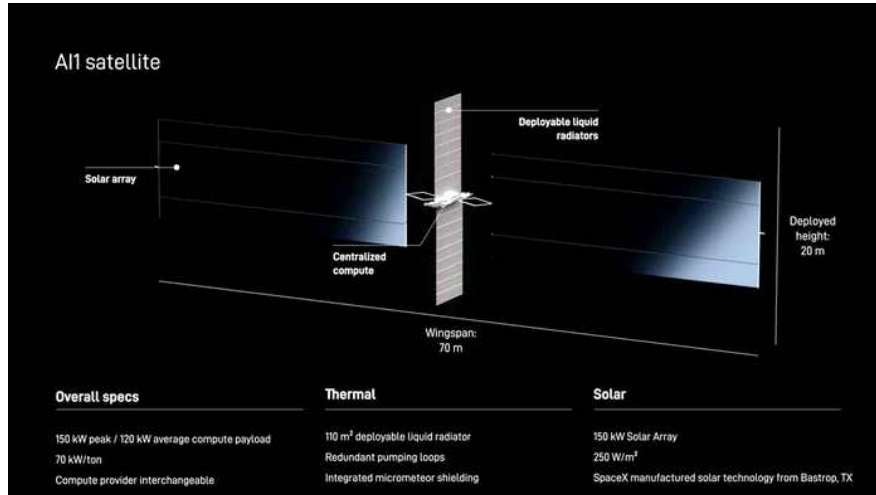
- 위성 기반 인터넷 시장은 오지·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마존은 당초 목표했던 7700기 이상의 위성 배치 계획에서 다소 지연된 상태
 - 회사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오는 7월까지 1600기를 배치해야 하는 기한의 연장 또는 면제를 요청
- 글로벌스타는 이미 운영 중인 위성망을 보유하고 있어 아마존의 위성 사업 확대를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글로벌스타의 위성망 규모는 스타링크보다 작고, 주로 통신 음영지역에서 휴대전화 등 기기 연결 서비스에 집중
 - 글로벌스타는 애플의 아이폰 긴급 구조 신호 기능에 위성통신을 제공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536646645416120&mediaCodeNo=257&OutLnkChk=Y>

산업-2

스페이스X “우주에 AI 데이터센터 띄운다” ...스페이스X AI 위성 공개

원문: '26. 6. 10. 전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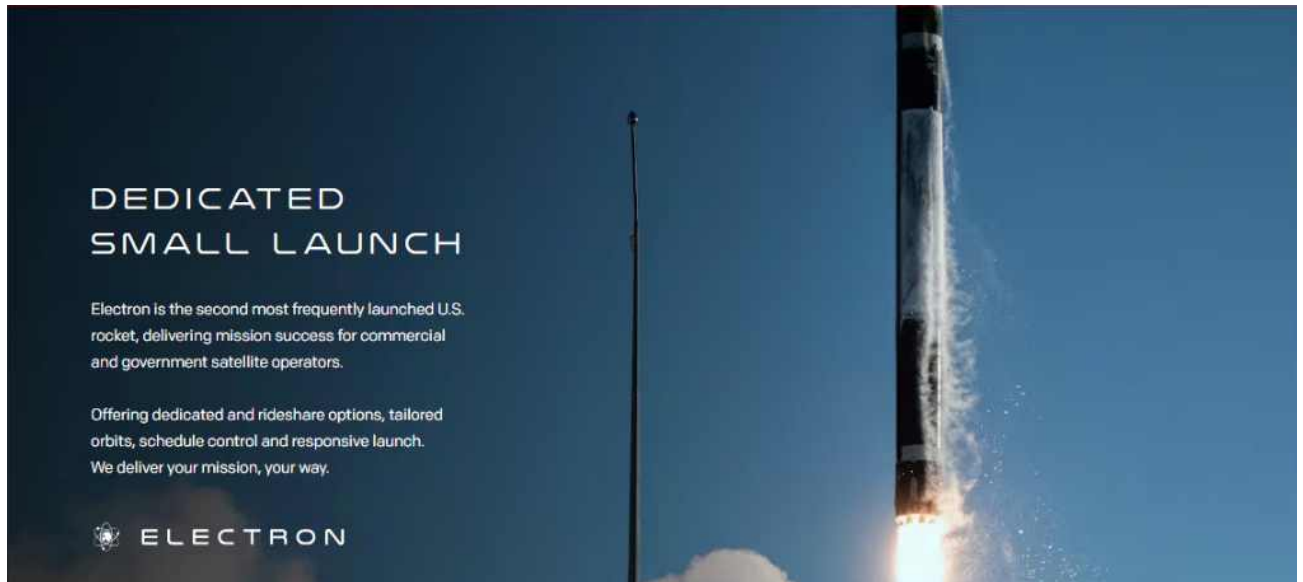
출처=엑스(SpaceX)

- 스페이스X가 우주 공간에서 인공지능(AI) 연산을 수행하는 전용 위성 ‘AI1(AI-One)’의 설계안을 공개
 - AI1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위성과 달리 저궤도에서 AI 데이터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위성
 - 공개된 사양에 따르면 AI1은 최대 150kW, 평균 120kW의 컴퓨팅 페이로드(연산 장비)를 탑재하며, 이는 엔비디아 GB300 AI 서버 랙 1대에 맞먹는 수준
 - 전력 공급을 위한 150kW급 태양광 패널과 약 33평 규모의 전개형 액체 냉각 시스템도 적용
 - 1Tb급 레이저 통신망과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활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며, 지상과는 약 0.003초 수준의 지연 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
 - AI 위성은 스타링크 위성보다 구조가 훨씬 단순하며, 대부분의 기술은 이미 스타링크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
 - 이를 통해 스페이스X는 향후 AI 위성 군집을 구축해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 센터를 운영한다는 구상

<https://www.etnews.com/20260609000388>

산업-3 로켓랩 로켓랩 12조 3500억원 들여 이리듬 인수... 발사체 넘어 위성통신까지 확장

원문: '26. 6. 30. 조선비즈



/로켓랩 홈페이지 캡처

- 로켓랩이 위성통신 기업 이리듬 커뮤니케이션즈를 약 8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
 -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Rocket Lab)이 위성통신업체 이리듬 커뮤니케이션즈(Iridium Communications)를 약 80억 달러(약 12조 3500억 원)에 인수
 - 소형 로켓 발사·위성 제작에 강점을 가진 로켓랩은 이번 인수를 통해 통합 우주 서비스 기업으로 사업 범위 확장
 - 6G는 단순한 데이터 전달망이 아닌 AI 기반 네트워크로, 로봇·자율주행·드론 등 미래 서비스가 끊임 없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
 - 로켓랩은 29일(현지시각) 이리듬의 모든 보통주를 주당 54달러의 현금·주식 거래로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
 - 이리듬 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현금 27달러와 교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로켓랩 보통주를 받음
 - 이번 거래에서 이리듬의 기업가치는 약 80억 달러로 평가

- 로켓랩은 이번 인수로 발사체와 위성 제조, 주파수, 궤도상 통신 서비스를 아우르는 수직통합 우주기업을 만들겠다는 계획
 - 회사는 이리듐의 글로벌 위성 통신망과 L 밴드 주파수, 500개 이상 파트너 생태계를 결합해 자체 위성군을 설계·제작·발사·운영하는 구조를 갖추겠다고 설명
- 이리듐은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기반으로 음성·데이터 통신과 위치·항법·시각(PN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항공, 해운, 정부, 국방 비상 대응, 산업 현장 등 지상 통신망이 닿기 어려운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
 - 전 세계 가입자는 255만 명 이상이다. 2025년 매출은 8억 7170만 달러, 조정 상각전영업이익(OEBITDA) 4억 9500만 달러를 기록
- 로이터통신은 이번 거래가 로켓랩이 발사 서비스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위성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를 함께 보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
 - 발사체와 위성 통신 인프라를 함께 보유한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모델에 가까워지는 전략이라는 평가
- 인수는 로켓랩이 직접기기연결(D2D) 위성통신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도 될 전망
 - D2D는 스마트폰 등 일반 기기가 지상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
 - 스페이스X 스타링크, 글로벌스타 등도 관련 시장을 확대
 - 거래는 양사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완료 시점은 2027년 중반으로 예상
- 로켓랩은 인수 대금 중 현금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 도이체뱅크와 웰스파고로부터 36억 달러 규모의 364일 선순위 담보 브리지론 약정을 확보
 - 나머지는 보유 현금과 추가 부채·주식 조달을 통해 마련할 계획